

# AHP를 이용한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탐색\*

## Explo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Reading Material Selection Factors Using AHP

심지영 (Jiyoung Shim)\*\*

### 초 록

본 연구는 이용자 관점에서 독서자료 선택요인을 체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어필 요소 체계와 도서선택 관련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5개 상위 요인과 22개 하위 요인으로 구조화된 AHP 모형을 설계하고 요인 간 쌍대 비교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세분화된 특성(성별, 연령, 독서 주기, 도서 분야)에 따라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특성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요인을 밝힘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검색 환경 개선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ze the reading material selection factors from the users' perspective and to identify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To this end, based on the appeal factor system and empirical research on book selection, an AHP model structured with 5 superordinate factors and 22 subordinate factors was designed, and survey data on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factors were collected to identify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Also, the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reading material selection factors varies depending on the segmented characteristics of users(gender, age, reading cycle, and book gen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information search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users by identifying the selection factors that readers consider important.

키워드: 독서자료, 선택요인, 계층분석법, 상대적 중요도, 성인 독자  
reading material, selection factors, AHP, relative importance, adult reader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4137).

\*\*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iyoung\_shim@swu.ac.kr)

■ 논문접수일자: 2026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자: 2026년 3월 9일 ■ 게재확정일자: 2026년 3월 15일  
■ 정보관리학회지, 43(1), 241-260, 2026. <http://dx.doi.org/10.3743/KOSIM.2026.43.1.241>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독서자료의 이용은 다양한 환경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독서자료의 성격뿐만 아니라 독자 개개인의 요구가 광범위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도 다양하다. 실례로 소셜 독자는 자료탐색 상황에서 개개인의 독서 이력에 기반하여 선호 주제, 장르, 저자를 특정하며, 이전 독서 경험에서 흥미를 느꼈던 내용과 유사한 속성의 자료를 탐색하는 경향을 드러냈다(Anna & Pertti, 2017). 심지영(2022)의 도서탐색 실험에서는 독자가 도서 내용의 구체적 속성을 찾기 위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예, 책 본문 미리 보기, 책 소개, 북트레일러 등)를 활용하는가 하면, 다양한 사회적 교류(예, SNS, 사회적 목록 사이트(social cataloging site)의 도서추천, 독자 리뷰 등)를 통해 개인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선별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도서관 OPAC을 비롯한 도서 검색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로 제공되어 온 정보는 주로 도서의 서지적 속성(예, 서명, 저자, 출판사, 주제어 등)에 한정되며, 독자의 구체적 이용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의 이용 맥락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독자가 어떤 측면에서 독서자료에 흥미를 느끼고 선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독자자문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도서추천을 위해 개발된 어필 요소(appeal factor)를 비롯해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다양한 속성의 독서자료 선택요인이 파악되었다. 도서의 내용 요소에 초점을 맞춘 어필 요소 연구(Alpert, 2006; Saricks, 2005; Wyatt, 2007)를 통해 소설과 비소설 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독서자료 선택요인이 드러났으며,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심지영, 2022; 2024; Anna & Pertti, 2017; Dali, 2012)에서는 독자와 저자 관련 속성이 독서자료 선택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선택요인이 실제 독자에게 어떤 비중으로 독서자료 선택에 작용하는지 계량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자료를 탐색할 때 독자의 이용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독자 중심의 메타데이터 속성을 체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파악된 독서자료 선택요인 가운데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주요 속성을 선별하고,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독서자료를 선택하는 요인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산출하여 독자와 독서자료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독서자료 선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독서자료 선택요인

독서자료 선택요인은 교육학과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되어온 주제다(심지영, 2025).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를 지원하고, 도서검색 및 추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맥락에서 독서자료 선택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독자에게 적절한 도서추천을 하기 위한

어필 요소(appeal factor)가 개발되어왔고(Wyatt, 2020),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독서자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도서검색 및 추천시스템 개선 연구에서는 독서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해 독자가 독서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고려되었다.

특히, 어필 요소는 “독자들이 독서와 독서 경험에 대해 갖는 다양한 매력을 설명하는 용어 집합”(Wyatt, 2020, 436)으로, 독자가 특정 독서자료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요소로 기능하며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독서자료 선택요인과도 대응된다(심지영, 2025). 어필 요소 체계는 소설과 비소설, 독서와 독자, 창작자/배포자, 자료 유형(예, 웹툰, 비디오 게임)의 세부적 관점을 반영하며, 독서자료의 다양한 속성과 이용 맥락을 반영하는 형태로 개발되어왔다. 소설과 비소설 장르적 특성에 각각 초점을 두고 개발된 어필 요소는 독서자료의 내용적 속성에 집중된다. 예를 들면, 소설 고유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Saricks(2005)의 어필 요소는 ‘글의 전개 속도(pacing)’, ‘등장인물의 성격(characterization)’, ‘스토리라인(story line)’, ‘이야기 구조와 어조(frame and tone)’, ‘문체(style)’로, 언어표현과 스토리, 인물/캐릭터와 같은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비해, 비소설 어필 요소는 도서 내용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속성에 집중된다. Alpert(2006)의 비소설 어필 요소는 ‘사실에 기반한 주제/소재(documentable subject matter)’, ‘철저한 조사(exhaustive research)’,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scene)’, ‘아이디어/메시지(theme)’

와 같은 정보 전달 요소를 포함한다. Wyatt(2007)의 비소설 어필 요소 또한 ‘내러티브 맥락(narrative context)’, ‘주제(subject)’, ‘상세한 내용(detail)’, ‘배경(setting)’과 같이 사실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도서의 내용 중심으로 제시되던 어필 요소는 이후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독자와 창작자, 배포자 관점 등이 추가되었다. Dali(2014)와 심지영(2022)은 독자로부터 수집한 질적 데이터(인터뷰, 도서탐색 실험)를 내용분석하여 도서 관점의 어필 요소와 더불어 독자 관점의 요소(호기심, 개인적 상황/요구, 친구/전문가 추천, 도서/저자/시리즈의 인기), 창작자/배포자 관점의 요소(저자, 출판사)를 독서자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심지영(2024)은 온라인 서점 리뷰에 드러난 독자의 도서이용 경험에 기반해 독서와 저자, 독자 관점의 어필 요소를 세분화하였다. 특히 저자의 이력, 자질, 평판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요소를 식별하였으며, 독자의 도서선택을 유발하는 호기심과 독자의 상황/요구의 관점에서 독서자료 선택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외,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선택 관련 실증연구에서도 독자와 저자 관련 요인이 도서 요인과 더불어 주요하게 나타났다. Anna와 Pertti(2017)의 도서탐색 실험에서는 소설 독자를 대상으로 도서 관련 요인(주제, 내용, 제목, 장르, 스토리, 언어, 표지)은 물론 저자 요인, 독자에게 관련 정보 자극을 주는 도서정보 요인(추천, 홍보)을 식별하였다.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소설과 논픽션 이용행태를 탐색한 Dali(2012)의 연구에서도 도서 관련 요인(주제, 내용, 제목, 언어, 장르, 캐릭터, 배경, 표지),

독자 관련 요인(배경지식, 교육, 지식, 상황/분위기, 감정적 지지, 재미/즐거움, 학습/진로, 호기심, 실용적 유용성), 도서정보 관련 요인(추천, 홍보), 저자 요인이 독서자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성인 독자의 소설 선택요인을 파악한 Ooi와 Liew(2011)의 연구에서는 독자 개인의 관심사와 독자 주변 네트워크(예, 가족, 친구, 독서클럽, 대중매체, 도서관)를 매개로 한 도서정보 관련 요인들이 주로 나타났다.

## 2.2 AHP 분석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은 의사결정 구성요소를 구조화하고 정량화한 접근 방식으로, 의사결정 단계에 작용하는 의사결정 요인을 계층화하고, 모든 요인을 대상으로 요인 간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한다(Saaty, 2008). 주로 정책 혹은 서비스 제공, 평가지표 개발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어 오던 AHP는 검색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고려되기 시작했다. Phillips-Wren과 Forgionne(2006)은 검색성능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AHP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시스템의 이용자 탐색 속성을 구조화하여 AHP 모형을 구성하고 속성 간 쌍대 비교를 통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검색성능 개선도를 도모하였다. Quarati et al.(2017)은 각기 다른 이용 맥락에 놓여있는 이용자(개발자, 시소러스 관리자, 색인 관리자) 관점을 반영하여 시소

러스를 순위화하기 위해 AHP를 적용하였다. 시소러스의 활용 맥락에 기반하여 시소러스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준을 대상으로 AHP 쌍대 비교를 수행하여 가중치를 구성하고 순위화에 반영하였다. Kubler et al.(2018)은 오픈 데이터 포털에서 이용자가 중시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실제 오픈 데이터 포털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43개국 259개 오픈 데이터 포털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품질 요소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요소의 중요도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개별 이용자가 중시하는 요소에 따라 맞춤형 포털 순위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검색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AHP를 적용한 것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기능요건을 이용자 관점에서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나타났다. 양정윤(2023)은 KDC 웹 버전 개발을 위한 기능요건을 탐색하면서 이용자 관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정윤(2023)의 연구에서는 웹 기반 분류표의 기능을 2개 계층(상위 계층 5개, 하위 계층 14개) 모형으로 구조화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9점 척도의 쌍대 비교 설문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중시하는 기능요건의 항목별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 2.3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어필 요소를 비롯한 독서자료 선택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독서자료와 상호작용하는 독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선택요인

들이 파악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선택요인들은 여러 이용자 연구를 통해 독서자료 이용자에게 유의미한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밝혀진 개별 요인이 실제 독서자료 이용자의 선택 과정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계량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 환경에서 의사결정 이론에 기반한 AHP 방법론을 제안한 Phillips-Wren과 Forgionne(2006)의 연구에 주목하고, 기존 연구된 독서자료 선택요인에 기반하여 독서자료 선택요인 모형을 구조화하고 AHP를 적용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각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금까지 검색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AHP를 적용한 연구(Kubler et al., 2018; Phillips-Wren & Forgionne, 2006; Quarati et al., 2017)는 실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선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요인 관련 중요도를 파악하기보다는, 검색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AHP 쌍대 비교를 통한 가중치를 순위화에 반영하도록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독서자료를 주기적으로 탐색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정보서비스 환경에서 실질적인 이용자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검색 환경 개선과 관련한 AHP의 적용이 시소러스나 웹 기반 분류표와 같이 소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관련 연구(양정운, 2023; Quarati et al., 2017)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의 독서자료 검색 환경 개선도를 도모하며, 보다 보편적 차원의 이용자 집단으로

확장하는 한편 독서 이용자 관점의 속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 3.1 독서자료 선택요인 선정 및 AHP 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독자 관점에서 독서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과정은 의사결정 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나열한 후 각 요소 간 쌍대 비교를 통해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Saaty, 2008). AHP는 상위 계층을 기준으로 이를 구성하는 하위 계층 요소들의 중요도를 산출하며, 상위 계층의 중요도와 하위 계층의 중요도를 결합함으로써 전체 계층 구조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독서자료 선택이라는 의사결정 문제에 작용하는 선택요인을 선정한 기준은 독서지문 서비스 현장에서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개발된 어필 요소와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주요 속성을 지닌 요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AHP 모형 설계를 위한 상위 요인은 어필 요소 연구에서 주요 속성으로 제시해 온 도서, 저자, 독자 속성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도서와 독자 속성은 <표 1>의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도서의 내용적 속성과 형식적 속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독자는 개

〈표 1〉 독서자료 선택요인

상위 요인	하위 요인	선택 기준	참고문헌
도서내용	언어표현	문체, 언어적 표현, 번역의 질 등 도서에 표현된 언어적 내용	심지영(2022; 2024), Alpert(2006), Anna & Pertti(2017), Dali(2012; 2014), Saricks(2005), Wyatt(2007)
	주제/장르	도서가 다루는 주제 혹은 소재, 도서 장르	
	스토리	이야기의 기술, 구성, 전개 방식	
	인물/캐릭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사고방식, 행동 등	
도서형식	설명 방식	주제/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하는 방식(예시/사례, 일화, 도표/차트, 삽화, 사진 등 포함)	심지영(2022; 2024), Anna & Pertti(2017), Dali(2012)
	편집/제본	글자 간격, 제본 상태 등	
	사이즈	페이지 수, 판형(크기)	
저자	디자인	표지 등 도서 내외부 디자인	심지영(2022; 2024), Anna & Pertti(2017), Dali(2012; 2014)
	전문 이력	도서 내용과 관련된 저자의 경력(예, 해당 분야 학위 소지자, 분야 종사자, 전문가, 저널리스트, 수상 이력 등)	
	지성	저자의 지성, 주제 의식, 지적 통찰력, 유머/재치	
	문장력	문학적 표현 능력, 글쓰기 능력, 스토리텔링	
독자 관심	평판	저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 대중적 인기, 분야 권위자	심지영(2022; 2024), Alpert(2006), Dali(2012; 2014), Ooi & Liew(2011), Wyatt(2007)
	마음의 성장/위로	정서적 위안, 내면적 성숙	
	재미	재미와 즐거움	
	자기개발	업무, 학습, 대인관계 등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능력 개발	
	전문지식/교양	전문 주제분야에 대한 지식/상식/교양 증대	
도서정보	사회 트렌드	사회적 관심사 파악, 미래 예측	심지영(2022; 2024), Anna & Pertti(2017), Dali(2012; 2014), Ooi & Liew(2011)
	드라마/영화 원작	도서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대중매체 소개	신문, 방송(TV, 라디오) 책 소개, 광고, 리뷰	
	독자/지인 추천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광고, 독자 리뷰, 가족, 친구 추천	
	유명인/전문가 추천	유명인, 사서 등 전문가, 전문기관의 추천도서, 선정도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목록 등 대중적 인기, 화제가 된 도서		

인의 관심과 관련된 속성과 독자에게 관련 정보 자극을 주는 도서정보 속성으로 구분하여, 5개 상위 요인(도서내용, 도서형식, 저자, 독자 관심, 도서정보)으로 구성하였다.

하위 요인은 다섯 가지 상위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드러난 요인들을 선별하여 의미상 유사한 요인을 통합하여 각각 5개 이내로 구성하였다.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하위 요인은 소설과 비소설의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어필 요소를 제시한 연구(Alpert,

2006; Saricks, 2005; Wyatt, 2007)를 토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대응되는 속성의 요인을 실증연구(심지영, 2022; 2024; Anna & Pertti, 2017; Dali, 2012; 2014)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도서형식, 저자, 독자(독자 관심, 도서정보) 관련 하위 요인은 도서뿐만 아니라 독자, 창작자 관점이 추가된 어필 요소 연구(심지영, 2022; 2024; Dali, 2014)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대응되는 속성의 요인을 〈표 1〉의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

에서 독자 속성의 선택요인으로 제시된 '지식', '감정적 지지', '재미' 등은 독자 개인의 관심과 관련된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추천', '인기', '대중매체' 등의 독자에게 관련 정보 자극을 주는 선택요인은 도서정보와 대응되는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AHP 분석에 의한 쌍대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모형을 <표 1>과 같이 2개 계층(상위 계층 5개, 하위 계층 22개)으로 구조화하였다.

### 3.2 데이터 수집 및 AHP 분석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된 독서자료 선택 요인(<표 1> 참조)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간 독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2025년 9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서울, 경기 지역의 도서관(공공도서관 2곳, 대학도서관 2곳, 전문도서관 2곳), 독서 모임(3곳), 서점(4곳), 영화, 공연장, 휴게 시설 등이 모여있는 복합문화공간(2곳) 등을 연구자가 직접 주기적으로 방문(총 34회)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수행에 대한 동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AHP 설문 응답에 할애되는 시간과 피로도를 고려하여 설문은 전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응답에 부담이 있을 경우 중도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연구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설문을 병행

하였다. 그 결과, 대면 설문으로부터 수집한 응답 80건(74.8%), 이메일 설문으로부터 수집한 응답 27건(25.2%)으로,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107부였다.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 구성은 <표 1>과 같이 5개 상위 요인(도서내용, 도서형식, 저자, 독자 관심, 도서정보)과 22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 간 쌍대 비교 시 양방향 9점 척도(1=같음, 3=약간 중요, 5=중요, 7=매우 중요, 9=절대 중요)를 사용하였다(Saaty, 2008).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은 총 49개의 쌍대 비교 문항,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문항(성별, 연령, 독서 주기, 직업, 선호하는 도서 분야) 5개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쌍대 비교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포함한 가이드 등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설문 모집 과정에서 설문 응답자의 구성은 남녀 성비, 연령 비율, 각 연령대 내에서의 성비도 고려하여 수집하였다.

한편, AHP 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쌍대 비교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 없이 일관된 응답을 하였는지가 연구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설문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이하 C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참여자의 경우 동의 과정을 거쳐 재응답 1회를 허용하였다. 쌍대 비교의 합리적 일관성을 판정하는 CR 값 기준은 일반적으로 0.1 이내이지만, 표본 특성(예, 비전문가 개인 집단)에 따라 CR 값 0.2 이내도 허용 가능한 수치로 간주하고 있으므로(Wedley, 1993), 일반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CR 값 기준을 0.2 이내로 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 총 107부 중 설문 응답의 모든 항목의 CR 값 0.2 이내를 충족하는 총 90부(재응답 37부 포함)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개별 응답자의 결과 통합은 기하평균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설문 데이터의 입력과 분석은 AHP 소프트웨어 SpiceLogic 4.2.7을 이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표본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응답한 표본은 최근 1년간 독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총 90명이며,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2>와 같다. 성

<표 2> 응답자 프로파일(N = 90)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43	47.8	
	여성	47	52.2	
연령	20대	22	24.4	
	30대	18	20.0	
	40대	22	24.4	
	50대	21	23.3	
	60대 이상	7	7.8	
독서 주기 (최근 1년 기준)	분기별	14	15.6	
	월간 단위	27	30.0	
	주간 단위	26	28.9	
	매일	23	25.6	
직업	회사원	30	33.3	
	학생	17	18.9	
	전문직	14	15.6	
	주부	11	12.2	
	사업	8	8.9	
	공무원	6	6.7	
	프리랜서	2	2.2	
	기타	2	2.2	
도서 분야	문학	소설	34	37.8
		수필	7	7.8
		시/동시	2	2.2
		그림책	1	1.1
	비문학	정치/사회/시사	12	13.3
		과학/기술/컴퓨터	7	7.8
		자기계발서	6	6.7
		철학/사상/종교	6	6.7
		어학/외국어	3	3.3
		역사/지리	3	3.3
		채테크	3	3.3
		경제/경영	2	2.2
		예술/문화	2	2.2
		취미/오락/여행/건강	2	2.2

별 구성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47.8%, 52.2%이며, 연령은 20대(24.4%), 30대(20.0%), 40대(24.4%), 50대(23.3%), 60대 이상(7.8%)으로 60대 이상 연령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이룬다. 응답자의 독서 주기는 매일(25.6%), 주간 단위(28.9%), 월간 단위(30.0%), 분기별(15.6%)로 나타났으며, 주로 읽는 도서 분야는 소설이 3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문학 장르(소설, 수필, 시/동시, 그림책)와 비문학 장르(정치/사회/시사, 과학/기술/컴퓨터, 자기계발서 등)의 분포가 각각 48.9%와 51.1%를 차지했다. 직업은 회사원, 학생, 전문직,

주부, 사업, 공무원, 프리랜서 등으로 나타났다.

#### 4.2 전체 중요도 분석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표 3>과 같으며, 독서자료 선택요인을 구성하는 상위 요인 간 중요도, 하위 요인 간 중요도,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의 곱으로 산출된 종합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각각 파악되었다.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상위 요인 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지닌 요인은 도서 내용

<표 3>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상위 요인			하위 요인			종합	
선택요인	중요도	순위	선택요인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서내용	0.3529	1	언어표현	0.1187	3	0.0419	11
			주제/장르	0.4735	1	0.1671	1
			스토리	0.2246	2	0.0793	3
			인물/캐릭터	0.0989	4	0.0349	12
			설명 방식	0.0842	5	0.0297	15
도서형식	0.0581	5	편집/제본	0.3184	2	0.0185	20
			사이즈	0.2345	3	0.0136	21
			디자인	0.4471	1	0.0260	17
저자	0.1555	3	전문 이력	0.1936	3	0.0301	14
			지성	0.3287	1	0.0511	5
			문장력	0.3117	2	0.0485	6
			평판	0.1660	4	0.0258	18
독자 관심	0.2926	2	마음의 성장/위로	0.1498	3	0.0438	8
			재미	0.2195	2	0.0642	4
			자기계발	0.1484	4	0.0434	9
			전문지식/교양	0.3375	1	0.0988	2
			사회 트렌드	0.1449	5	0.0424	10
도서정보	0.1409	4	드라마/영화 원작	0.0885	5	0.0125	22
			대중매체 소개	0.1521	4	0.0214	19
			독자/지인 추천	0.3177	1	0.0448	7
			유명인/전문가 추천	0.2320	2	0.0327	13
			베스트셀러	0.2098	3	0.0296	16

(0.3529)이었으며, 다음으로 독자 관심(0.2926), 저자(0.1555), 도서정보(0.1409), 도서형식(0.058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요인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도서형식 요인은 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상위 요인 1순위인 '도서 내용'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주제/장르(0.4735), 스토리(0.2246), 언어표현(0.1187), 인물/캐릭터(0.0989), 설명 방식(0.084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제/장르'는 '도서 내용' 하위 요인에서 47.4%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종합 중요도에서도 1순위 요인(0.1671)으로 드러났다. '도서 내용' 2순위 하위 요인인 '스토리' 또한 도서 내용과 관련하여 22.5%의 중요도를 보인 요인으로, 종합 중요도 3순위(0.0793)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 내용' 하위 요인의 3순위부터 5순위 요인은 종합 중요도에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언어표현'은 종합 중요도에서 11위(0.0419), '인물/캐릭터'는 12위(0.0349), '설명 방식'은 15위(0.0297)로 각각 나타났다.

상위 요인 2순위인 '독자 관심'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문지식/교양(0.3375), 재미(0.2195), 마음의 성장/위로(0.1498), 자기계발(0.1484), 사회 트렌드(0.1449) 순으로 드러났다. '독자 관심'은 5개 하위 요인의 종합 중요도가 모두 상위 50% 이내의 순위를 차지하며, 모든 요인의 중요도가 고르게 중상위권에 분포하였다. '독자 관심'의 1순위 하위 요인인 '전문지식/교양'은 33.8%를 차지하며, 종합 중요도 2위(0.0988)로 드러났으며, 22.0%의 중요도를 보인 2순위 요인 '재미'는 종합 중요도 4위(0.0642)로 나타났다. 또한, '독자 관심' 3순위 요인인 '마음의 성장/위로'는 종합 중요도

8위(0.0438), 4순위 '자기계발'은 9위(0.0434), 5순위 '사회 트렌드'는 10위(0.0424)를 차지했다.

상위 요인 3순위로 나타난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지성(0.3287), 문장력(0.3117), 전문 이력(0.1936), 평판(0.1660) 순으로 드러났다.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에서 각각 30% 이상 비중을 차지한 1순위 '지성'과 2순위 '문장력'은 각각 종합 중요도 5위(0.0511)와 6위(0.0485)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드러냈다. 반면, 저자의 '전문 이력'과 '평판'은 종합 중요도 14위(0.0301)와 18위(0.0258)로 나타나며, 저자의 내적 자질이 독서자료 선택에 더 주요한 요인임을 드러냈다.

독서자료 선택의 4순위 상위 요인 '도서정보'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독자/지인 추천(0.3177), 유명인/전문가 추천(0.2320), 베스트셀러(0.2098), 대중매체 소개(0.1521), 드라마/영화 원작(0.0885) 순으로 드러났다. '도서정보' 요인은 상대적으로 추천 관련 요인이 1, 2순위를 차지하며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미디어 노출과 관련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드러냈다. 한편, 상위 요인 중 최하위 순위를 보인 '도서형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디자인(0.4471), 편집/제본(0.3184), 사이즈(0.2345) 순으로 드러났다. '도서형식' 요인은 종합 중요도에서도 각각 17위(0.0260), 20위(0.0185), 21위(0.0136)로 드러나며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 4.3 상위 요인 중요도 집단별 분석 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상위 요인

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독서 주기별,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 비문학)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5개 상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표 4〉, 〈표 5〉 참조). 그 결과,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연령대와 독서 주기와 관련하여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변화가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저연령 집단(20대, 30대)의 독서자료 선택에서 '저자'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 집단에서 '저자'의 중요도는 0.1555로 3순위였는데 반해, 2~30대의 경우 4순위로, 각각 중요도가 0.0996, 0.1399로 드러났다. 반면, 60대 이상 집단에서 '저자' 요인의 중요도는 0.2909로 2순위를 차지

해 타 연령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독서자료 선택에서 저자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자 관심' 요인이 20~50대에서는 1~2순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데 비해, 60대 이상 집단의 경우 4순위(0.1625)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표 4〉 참조).

연령대와 관련하여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저자', '독자 관심' 요인은 독서 주기와 관련해서도 차별화된 특징을 드러냈다. 독서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집단(분기별, 월간 단위)은 주기가 짧은 집단(주간 단위, 매일)에 비해 독서자료 선택에서 '저자'의 중요도가 각각 0.0867, 0.1411로 상대적으로 낮게 드러난 데 비해, '독자 관심'의 중요도는 0.4061, 0.3354로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4〉 독서자료 선택 상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도서내용	0.3725	1	0.3347	1	0.3567	1	0.2561	2	0.3948	1	0.3736	1	0.3344	1
도서형식	0.0547	5	0.0613	5	0.0777	5	0.0611	5	0.0463	5	0.0528	5	0.0422	5
저자	0.1480	3	0.1626	3	0.0996	4	0.1399	4	0.1867	3	0.1661	3	0.2909	2
독자 관심	0.2788	2	0.3048	2	0.3248	2	0.3600	1	0.2384	2	0.3038	2	0.1625	4
도서정보	0.1460	4	0.1365	4	0.1413	3	0.1829	3	0.1339	4	0.1037	4	0.1701	3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5〉 독서자료 선택 상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도서내용	0.3297	1	0.3756	1	0.3665	2	0.3075	2	0.3605	1	0.3608	1
도서형식	0.0587	5	0.0574	5	0.0537	5	0.0624	5	0.0522	5	0.0579	5
저자	0.1639	3	0.1472	3	0.0867	4	0.1411	4	0.1445	4	0.2493	2
독자 관심	0.3038	2	0.2816	2	0.4061	1	0.3354	1	0.2882	2	0.1908	3
도서정보	0.1438	4	0.1382	4	0.0869	3	0.1536	3	0.1546	3	0.1412	4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 4.4 하위 요인 중요도 집단별 분석 결과

독서자료 선택 상위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성별, 연령별, 독서 주기별,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 비문학))로 구분한 결과는 <표 6>부터 <표 15>와 같다. 먼저, 1순위 상위 요인인 '도서 내용'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요도의 차이 또한 미미하였다. 한편, 모든 연령대에서 우선순위 1순위(주제/장르)와 2순위(스토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대의 경우 독서자료 선택에서 '인물/캐릭터'의 우선순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데 반해, 50대와 60대 이상의 경

우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비문학 분야 독서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설명 방식'이 3순위로 문학 선호 집단의 5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시되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반면, 문학 선호 집단의 경우 '언어표현'의 중요도가 3순위(0.1529)로 비문학 선호 집단의 4순위(0.0921)보다 높은 중요도를 드러냈다(<표 7> 참조). 또한, 매일 독서를 하는 집단에서의 '언어표현' 중요도가 0.1768로 타 연령대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는 것이 눈에 띈다(<표 7> 참조).

다음으로 '도서형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성별과 도서 분야, 독서 주기에 따른 우선순위 변화는 드러나지

<표 6> '도서내용'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언어표현	0.1185	3	0.1190	3	0.1164	4	0.1059	3	0.1497	3	0.1022	4	0.1246	3
주제/장르	0.4683	1	0.4777	1	0.4252	1	0.4817	1	0.4534	1	0.5057	1	0.5444	1
스토리	0.2213	2	0.2274	2	0.2485	2	0.2402	2	0.2120	2	0.2074	2	0.1892	2
인물/캐릭터	0.0985	4	0.0994	4	0.1209	3	0.1004	4	0.1098	4	0.0823	5	0.0595	5
설명 방식	0.0934	5	0.0766	5	0.0891	5	0.0718	5	0.0751	5	0.1024	3	0.0824	4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7> '도서내용'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언어표현	0.1529	3	0.0921	4	0.0575	5	0.1349	3	0.1040	3	0.1768	3
주제/장르	0.4444	1	0.4968	1	0.5339	1	0.4821	1	0.4907	1	0.3929	1
스토리	0.2272	2	0.2192	2	0.2306	2	0.1993	2	0.2295	2	0.2338	2
인물/캐릭터	0.1067	4	0.0907	5	0.0908	3	0.0898	5	0.0846	5	0.1326	4
설명 방식	0.0687	5	0.1012	3	0.0872	4	0.0938	4	0.0913	4	0.0639	5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8〉 ‘도서형식’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편집/제본	0.3401	2	0.2989	2	0.2781	2	0.1899	3	0.3659	2	0.4292	1	0.3780	2
사이즈	0.2398	3	0.2291	3	0.2476	3	0.2610	2	0.2353	3	0.1854	3	0.2402	3
디자인	0.4200	1	0.4720	1	0.4743	1	0.5491	1	0.3989	1	0.3855	2	0.3817	1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9〉 ‘도서형식’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편집/제본	0.3258	2	0.3113	2	0.3141	2	0.3110	2	0.2716	2	0.3826	2
사이즈	0.2372	3	0.2319	3	0.2585	3	0.2736	3	0.1929	3	0.2230	3
디자인	0.4370	1	0.4567	1	0.4274	1	0.4154	1	0.5355	1	0.3944	1

않지만, ‘디자인’과 ‘편집/제본’의 중요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 8〉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디자인’ 요인을 중시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편집/제본’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글자 간격 등을 포함한 ‘편집/제본’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경향을 드러낸 데 비해, ‘디자인’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독서자료 선택 3순위 상위 요인으로 드러난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집

단 결과와 비교했을 때 문학과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 우선순위 변화가 눈에 띈다. 전체 집단에서 저자의 ‘지성’ 요인이 1순위였던 데 비해 (〈표 3〉 참조),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문장력’ 요인이 1순위로 드러나며, 중요도(0.3946) 또한 비문학 선호 집단의 중요도(0.239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저자의 ‘전문 이력’의 상대적 중요도(0.2581)가 문학 선호 집단의 중요도(0.1378)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한편, 저자의 ‘문장력’ 요인은 성별과 독서 주기와 관련해서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차이를

〈표 10〉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 이력	0.2012	3	0.1857	3	0.1783	3	0.1635	4	0.1625	3	0.2349	3	0.2992	2
지성	0.3520	1	0.3069	2	0.3252	2	0.2647	3	0.3765	1	0.3209	1	0.3227	1
문장력	0.2746	2	0.3478	1	0.3533	1	0.2815	2	0.3457	2	0.2600	2	0.2661	3
평판	0.1723	4	0.1596	4	0.1433	4	0.2903	1	0.1153	4	0.1843	4	0.1119	4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1〉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전문 이력	0.1378	4	0.2581	2	0.2199	3	0.2538	3	0.2018	3	0.1138	3
지성	0.3146	2	0.3298	1	0.3561	1	0.2893	1	0.3311	1	0.3287	2
문장력	0.3946	1	0.2392	3	0.2212	2	0.2851	2	0.2752	2	0.4480	1
평판	0.1529	3	0.1730	4	0.2029	4	0.1718	4	0.1919	4	0.1094	4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보였다. 여성은 문장력에 대한 우선순위가 1순위로 전체 집단 결과(2순위)보다 높았으며, 중요도 또한 0.3478로 남성의 0.27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일 독서를 하는 집단의 경우 ‘문장력’이 1순위 요인으로 타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중요도(0.4480)를 드러냈다(〈표 10〉, 〈표 11〉 참조).

독서자료 선택 4순위 상위 요인으로 드러난 ‘독자 관심’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대별 우선순위가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독서자료 선택에서 남성은 ‘자기계발’을 3순위(0.1849)로 중시하고, ‘마음의 성장/위로’를 5순위(0.1120)로 가장 낮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반면, 여성은 ‘마음의 성장/위로’를 3순위(0.1917)로 중시하

고, 자기계발 요인을 5순위(0.1193)로 상대적으로 낮게 고려하고 있었다. ‘사회 트렌드’의 경우 남녀 모두 ‘독자 관심’에서 4순위 하위 요인으로 꼽으며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남성의 중요도(0.1589)가 여성(0.13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독자 관심’과 관련된 하위 요인은 문학 선호 집단과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차이를 드러냈다.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재미’ 요인이 1순위였던 데 반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전문지식/교양’이 1순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마음의 성장/위로’ 요인의 중요도가 0.1935로 3순위를 차지한 데 비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0.1076으로 5순위로 드러났다. 반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사회 트렌드’ 요인이 2순

〈표 12〉 ‘독자 관심’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마음의 성장/위로	0.1120	5	0.1917	3	0.1434	4	0.1175	5	0.1411	3	0.1748	2	0.2003	3
재미	0.2105	2	0.2237	2	0.2919	1	0.1932	2	0.2988	1	0.1477	4	0.1214	5
자기계발	0.1849	3	0.1193	5	0.1313	5	0.1548	3	0.1352	4	0.1411	5	0.2227	2
전문지식/교양	0.3338	1	0.3343	1	0.2864	2	0.3846	1	0.2905	2	0.3879	1	0.3292	1
사회 트렌드	0.1589	4	0.1311	4	0.1470	3	0.1499	4	0.1343	5	0.1485	3	0.1263	4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3〉 ‘독자 관심’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마음의 성장/위로	0.1935	3	0.1076	5	0.1094	5	0.1346	5	0.1253	5	0.2255	3
재미	0.3265	1	0.1378	4	0.2226	2	0.1843	2	0.1641	2	0.3274	1
자기계발	0.1220	4	0.1643	3	0.2186	3	0.1507	4	0.1600	3	0.0950	5
전문지식/교양	0.2591	2	0.3987	1	0.3261	1	0.3465	1	0.4240	1	0.2275	2
사회 트렌드	0.0989	5	0.1916	2	0.1234	4	0.1840	3	0.1267	4	0.1247	4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위(0.1916)로 나타나 문학 선호 집단의 5순위(0.0989)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한편, 매일 독서를 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미’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3〉 참조).

마지막으로 독서자료 선택 상위 요인에서 5순위로 드러난 ‘도서정보’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14〉, 〈표 15〉와 같다. 〈표 14〉에 의하면, 남성은 독서자료 선택과 관련하여 ‘유명인/전문가 추천’을 1순위로 중시하는 반면, 여성은 ‘독자/지인 추천’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었다. 관련하여, ‘유명인/전문가 추천’ 요인에 대해서는 남성의 중요도가 0.2667로 여성의 0.1983에 비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독자/지인 추천’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의 중요도가 0.3936으로 남성의

〈표 14〉 ‘도서정보’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드라마/영화 원작	0.0914	5	0.0836	5	0.1121	5	0.0600	5	0.1008	5	0.0712	5	0.1058	4
대중매체 소개	0.1872	4	0.1222	4	0.1270	4	0.1043	4	0.1572	4	0.1877	3	0.2430	3
독자/지인 추천	0.2435	2	0.3936	1	0.3326	1	0.2820	2	0.3184	1	0.3075	1	0.2796	1
유명인/전문가 추천	0.2667	1	0.1983	3	0.1401	3	0.2575	3	0.2514	2	0.2734	2	0.2781	2
베스트셀러	0.2113	3	0.2024	2	0.2882	2	0.2961	1	0.1723	3	0.1602	4	0.0935	5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5〉 ‘도서정보’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드라마/영화 원작	0.0845	5	0.0924	5	0.0837	5	0.0845	5	0.0690	5	0.1131	4
대중매체 소개	0.1292	4	0.1765	4	0.1500	4	0.1535	4	0.1461	4	0.1397	3
독자/지인 추천	0.3480	1	0.2887	1	0.2802	2	0.2212	3	0.3638	1	0.3920	1
유명인/전문가 추천	0.2283	2	0.2335	2	0.1523	3	0.2257	2	0.2538	2	0.2441	2
베스트셀러	0.2099	3	0.2088	3	0.3338	1	0.3151	1	0.1674	3	0.1111	5

\*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0.24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 소개' 요인과 관련하여 남성의 중요도(0.1872)가 여성(0.12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학 선호 집단과 비문학 선호 집단 비교에서는 '도서정보' 하위 요인의 우선순위는 같지만, '대중매체 소개'와 '독자/지인 추천' 요인에서 중요도의 차이가 눈에 띈다(〈표 15〉 참조).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독서자료 선택에서 '독자/지인 추천' 요인의 중요도가 0.3480으로, 비문학 선호 집단의 0.2887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중매체 소개' 요인의 중요도는 비문학 집단에서 0.1765로 나타나며 문학 집단의 0.1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독서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집단(분기별, 월간 단위)에서는 독서자료 선택에서 '베스트셀러'가 1순위로 드러난데 비해, 독서 주기가 짧은 집단(주간 단위, 매일)에서는 '독자/지인 추천' 요인이 1순위로 드러났다.

## 5. 결론 및 시사점

###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독서자료 선택요인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성별, 연령, 독서 주기,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과 비문학)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선택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자료의 상위 선택요인(도서 내용,

도서형식, 저자, 독자 관심, 도서정보) 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지닌 요인은 '도서 내용'(0.3529)으로 나타났으며, '독자 관심'(0.2926), '저자'(0.1555), '도서정보'(0.1409), '도서형식'(0.0581)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3개 요인인 도서 내용, 독자 관심, 저자의 중요도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서자료 선택 과정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도서형식' 요인의 경우 5.8%로 도서선택 과정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둘째, 상위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 상위 요인인 '도서 내용' 하위 요인 중에서는 특히 '주제/장르'와 '스토리' 요인의 중요도가 각각 0.4735, 0.224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합 중요도 순위에서도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2순위 상위 요인인 '독자 관심'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경우, 5개 요인(전문지식/교양, 재미, 마음의 성장/위로, 자기계발, 사회 트렌드)의 종합 중요도 순위가 각각 2위, 4위, 8위, 9위, 10위로 중상위권에 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드러냈다. 3순위 상위 요인으로 나타난 '저자' 요인의 경우, 저자의 내적 자질과 관련된 요인(지성, 문장력)의 중요도가 외적 요인(전문 이력, 평판)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상위 요인 4순위인 '도서정보' 요인의 경우 추천 관련 요인(독자/지인 추천, 유명인/전문가 추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공신력 있는 정보(유명인/전문가 추천, 베스트셀러, 대중매체 소개)보다 독자,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비공식 커뮤니티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요인 중 최하위 순위를 보인 '도서형식' 요

인의 하위 요인(디자인, 편집/제본, 사이즈)은 종합 중요도 순위가 각각 17위, 20위, 21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셋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독서 주기별,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 비문학)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위 요인 간, 하위 요인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서 차별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저자' 요인과 관련하여, 저연령대에서 저자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난 데 반해, 고연령대에서 저자를 중시하는 특성이 드러났다. 또한, 독서 주기가 짧은 집단에서 저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일 독서를 하는 집단에서 저자의 '문장력'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자의 문장력 요인은 상대적으로 문학 선호 집단과 여성 집단에서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 내용'의 '언어표현' 요인과 관련해서는 문학 선호 집단과 매일 독서를 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드러냈다. 한편, '독자 관심'과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마음의 성장/위로' 요인을 중시하는 반면, 남성은 '자기계발'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재미'가 1순위 요인으로 나타난 데 비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전문지식/교양' 요인이 1순위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도서정보'와 관련하여 남성은 '유명인/전문가 추천'을 1순위로 중시하는데 비해, 여성은 '독자/지인 추천'을 1순위로 하였으며, 특히 문학 선호 집단에서 '독자/지인 추천' 요인의 중요도가 비문학 선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5.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도서 내용', '독자 관심', '저자' 관련 속성이 주요한 선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서 내용'에서는 '주제/장르'와 '스토리' 요인의 비중이 높게 드러났고, '독자 관심' 관련 속성은 모두 중상위권에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자'의 경우 독자가 실제 관심 있는 속성은 저자의 전문 이력이나 평판보다 저자가 개별 저작을 통해 드러내는 주제의식, 통찰력, 문장력 등의 내적 자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유명인/전문가 추천', '베스트셀러', '대중매체 소개'와 같은 공신력 있는 '도서정보'보다 '독자/지인 추천'과 같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도서정보가 독서자료 선택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으로 도서관 OPAC에서 제공되어 왔던 '주제/장르' 속성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도서 메타데이터에서 포함시키기 어려웠던 속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독자 입장에서 독서자료를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관점과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저자의 내적 자질과 같은 속성에 대한 고려가 이용자 친화적인 독서자료 이용 환경을 위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미권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독자 자문 DB(readers' advisory databases) (예, NoveList 등)의 경우 도서 내용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속성(예, 캐릭터, 스토리 등)을 메타데이터 요소로 제공하고 있다(Adkins & Bossaller,

2007). 반면, 대부분의 도서검색 시스템은 독자 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본 결과에서 '도서 내용'과 더불어 주요 요인으로 드러난 '독자 관심'과 '저자' 관련 접근점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독자 관심'과 '저자'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독자자료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서 아이템이 지닌 다양한 속성을 손쉽게 추출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독자의 속성(성별, 연령, 독서 주기,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 비문학)) 구분에 따라라도 독자자료를 선택하는 요인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독자와 독자자료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독자자료 선택에 작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기존 독자자료 선택요인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여 선택요인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내용을 실제 독자의 관점에서 파악한 본 연구는 향후 이용자 관점이 반영된 패시트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심지영 (2022). 도서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도서이용 맥락 요소 탐색. *정보관리학회지*, 39(2), 299-324. <https://doi.org/10.3743/KOSIM.2022.39.2.299>
- 심지영 (2024). 온라인 서점 리뷰 내용분석을 통한 도서 관련 어필 요소 탐색. *정보관리학회지*, 41(4), 341-368. <https://doi.org/10.3743/KOSIM.2024.41.4.341>
- 심지영 (2025). 독자의 도서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제3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1-104.
- 양정운 (2023). 한국십진분류법 웹 버전 개발을 위한 기능요건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4), 147-165. <https://doi.org/10.3743/KOSIM.2023.40.4.147>
- Adkins, D. & Bossaller, J. E. (2007). Fiction access points across computer-mediated book information sources: A comparison of online bookstores, reader advisory databases, and public library catalog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9(3), 354-368. <https://doi.org/10.1016/j.lisr.2007.03.004>
- Alpert, A. (2006). Incorporating nonfiction into readers' advisory servic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6(1), 25-32. <https://doi.org/10.5860/rusq.46n1.25>
- Anna, M. & Pertti, V. (2017). Reader characteristics, behavior, and success in fiction book search.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8(9), 2154-2165. <https://doi.org/10.1002/asi.23843>
- Dali, K. (2012). Reading their way through immigration: The leisure reading practices of Russian-

- speaking immigrants in Canada.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3), 197-211.  
<https://doi.org/10.1016/j.lisr.2012.02.004>
- Dali, K. (2014). From book appeal to reading appeal: Redefining the concept of appeal in readers' advisory. *The Library Quarterly*, 84(1), 22-48. <https://doi.org/10.1086/674034>
- Kubler, S., Robert, J., Neumaier, S., Umbrich, J., & Le Traon, Y. (2018). Comparison of metadata quality in open data portal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5(1), 13-29. <https://doi.org/10.1016/j.giq.2017.11.003>
- Ooi, K. & Liew, C. L. (2011). Selecting fiction as part of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67(5), 748-772. <https://doi.org/10.1108/00220411111164655>
- Phillips-Wren, G. & Forgionne, G. (2006). Aided search strategy enabled by decision support.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2(2), 503-518.  
<https://doi.org/10.1016/j.ipm.2005.02.004>
- Quarati, A., Albertoni, R., & De Martino, M. (2017). Overall quality assessment of SKOS thesauri: An AHP-based approa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43(6), 816-834.  
<https://doi.org/10.1177/0165551516671079>
- Saaty, T. L. (2008).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Sciences*, 1(1), 83-98. <https://doi.org/10.1504/IJSSci.2008.017590>
- Saricks, J. G. (2005).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3r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Wedley, W. C. (1993). Consistency prediction for incomplete AHP matrices.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ling*, 17(4-5), 151-161. [https://doi.org/10.1016/0895-7177\(93\)90183-Y](https://doi.org/10.1016/0895-7177(93)90183-Y)
- Wyatt, N. (2007). *The Readers' Advisory Guide to Nonfic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Wyatt, N. (2020). Readers' advisory services and sources. In M. A. Wong & L. Saunders. (eds).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Santa Barbara, California: Libraries Unlimited, 666-701.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Shim, Jiyoung (2022). Exploring the contextual elements of book use to improve book recommender syst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2), 299-324.  
<https://doi.org/10.3743/KOSIM.2022.39.2.299>
- Shim, Jiyoung (2024). Exploring book-related appeal factors using content analysis of online bookstore review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4), 341-368.

<https://doi.org/10.3743/KOSIM.2024.41.4.341>

Shim, Jiyoung (2025).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readers' book selection. Proceedings of the 32nd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01-104.

Yang, Jeong-Yun (2023). A study on function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web vers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4), 147-165. <https://doi.org/10.3743/KOSIM.2023.40.4.147>